

한국 반 학습 계획

일시: 2020년 4월 18일

교사: 김소희

교재: 한국어 8

시간	수업내용
1교시 9:30~10:10	*숙제, 내가 생각하는 '한국이 경제, 사회, 문화, 의료 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인의 극찬을 받는 이유' 발표하기 * 사자성어 -동병상련 - 외유내강 -막상막하 - 이심전심 -설상가상 - 천생연분
2교시 10:15~11:00	*한국어 8, 13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. - 발음과 표기: 늘이다/늘리다, 벌이다/벌리다 - 문형/문법: ~하기에는, ~할 게 뻔하다 - 읽기 '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'
3교시 11:15~11:55	*Google Forms 민주주의 문제, 숙제 확인 *민주주의 생활 양식과 나 - 리더의 모습 - 그룹 구성원으로서의 나 - 소설 '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' 엄석대의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기 (영화 속에서 병태와 엄석대의 성격 파악하기,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)
4교시 12:00~12:40	*조선후기 정치변화 -영/정조의 정치개혁(영화 '역린' 주요장면 보기) -정약용, 거중기, 수원화성
숙제	1. 프린트 숙제 2. Google Forms 문제 확인: 사자성어, 역사 3. 글쓰기: 민주주의 논술 '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'(수업자료 파일)
	_____ 학생은 위에 표시된 4월 18일자 숙제와 답안지 확인 및 채점을 모두 마쳤습니다. 부모님 확인 서명: _____

한국반	사자성어	숙제
-----	------	----

<보기> **막상막하** **설상가상** **이심전심** **동병상련** **외유내강**

1. **예린:** 내일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까?

예린: 글썄..., 두 나라 실력이 막상막하라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.

2. **다현:** 한국어가 어려워. 몸도 아프고 힘들어.

윤서: 나도 그래.

신비: 둘이 동병상련이네.

3. **진:** 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 너무 당황했어.

종민: 왜?

진: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하고 여권이 모두 없어지고, 설상가상으로
갑자기 비까지 심하게 내려서 정말 고생했어.

4. **에블린:** 중은아, 너희 엄마는 조용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분 같아.

중은: 응, 맞아.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속은 아주 강한 분이셔.

에블린: 정말?

중은: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셔.

외유내강형(타입, 스타일)이신 가봐.

5. **재원:** 따르릉~~(전화를 받는다) 여보세요?

종민: 나, 종민이야.

재원: 어, 나도 지금 너한테 막 전화하려고 했는데.

우리 마음이 통했네. 이심전심이다.

한국반	사자성어	숙제
-----	------	----

설	상	가	상
이	심	전	심
동	병	상	련

외	유	내	강
막	상	막	하

● 사자성어와 알맞은 의미를 연결 하세요.

동병상련 *

*누가 더 잘하고 더 못하는지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비슷하다 **막상막하**

설상가상 *

*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이나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는 경우 **이심전심**

막상막하 *

*어려운 일에 또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

설상가상

외유내강 *

*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끼리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. **동병상련**

이심전심 *

*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마음과 의지는 강한 사람 **외유내강**

한국반	사자성어	숙제
-----	------	----

*알맞은 사자성어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.

<보기> 외유내강 막상막하 동병상련 성살가상 이심전심

1. 가: 기차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그때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?

나: 시간도 없는데 성살가상으로 차까지 막히니 아무래도 그 시간
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.

2. 가: 이거 선물이에요. 초코렛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.

나: 어? 저도 어제 마켓에서 비슷한 것을 샀는데..., 정말 우리는
이심전심이네요.

3. 가: 소희하고 아이유하고 누가 노래를 더 잘해요?

나: 둘 다 잘해요. 막상막하라니까요.

4. 가: 정희하고 소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.

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.

나: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.

5. 가: 선영씨 부인은 어떤 분이세요?

나: 제 아내는 보통 때는 얌전해 보이는데, 의지가 아주 강해서 자기가 해야
할 일은 꼭 하고 마는 사람이에요.

가: 아, 그래요? 외유내강이라더니 부인이 바로 그런 분이시네요.

한국반	발음과 표기	숙제
-----	--------	----

***늘이다**: 양이나 길이를 늘이다 (늘였다/늘일 것이다/늘여/늘이니까...)

***늘리다**: 시간이나 기간을 늘리다(늘렸다/늘릴 것이다/늘리니까...)

1. 고무줄을 잡아서 길게 (**늘였다**, 늘렸다)
2. 쉬는 시간을 (늘여, **늘려**) 주세요.
3. 이 바지 허리를 (늘여, **늘려**) 주세요.
4. 지난 겨울에는 한 번도 휴가를 쓰지 않았어요.

여름에 휴가 기간을 (늘일, **늘릴**) 거예요.

***벌이다**: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(벌였다/벌일 것이다/벌여..)

벌리다: 사이를 넓히거나 연다(벌렸다/벌릴 것이다/벌려..)

1. 새로운 사업을 (**벌였어요**, 벌렸어요)
2. 입을 (벌이지, **벌리지**) 마세요.
3. 이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(**벌였어요**, 벌렸어요).
4. 하늘을 향해 두 팔을 (벌여, **벌려**) 기지개를 펴시다.

***아래의 단어를 넣어 문장을 만드세요.**

1. **늘려**: 주시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휴교 기간을 **늘려**야 한다고 발표했다.
2. **늘였다**: 그녀는 씹다만 풍선껌을 손으로 만지막 거리며 **늘였다** 말았다는 반복했다.
3. **벌려**: 소희가 입을 크게 **벌려** 하품하고 있다.
4. **벌였다**: 길동이는 일만 **벌였다** 하면 사고를 친다.

한국반	문형/문법	숙제
-----	-------	----

*다음 ‘~기에는’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가: 이 책 어렵지요? (중학생이 읽다)

나: 아니요. 중학생이 읽기에는 어렵지 않아요.

2. 가: 음식이 충분한가요? (둘이 먹다)

나: 네. 둘이 먹기에는 충분해요.

3. 가: 새로 출시된 삼성 폴더 어때요? (학생이 사다)

나: 학생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.

4. 가: 아르바이트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? (중학생이 하다)

나: 중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.

*다음에 ‘~게 뻔하다/뻔해’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동생이 새로 산 아이폰을 보면 자기도 사달라고 할 게 뻔해요.

2. 그 사람은 오늘도 지각할 게 뻔하다.

3. 소희는 선물을 받으면 좋아서 팡팡 뿔 게 뻔해.

4. 아빠는 오늘도 늦게 들어오실 게 뻔해요.

*‘~게 뻔해’를 넣어 문장을 만드세요.

1. 아무도 티는 안 내지만 이번 내 생일에도 친구들은 깜짝 파티를 해 줄 게 뻔해.

2.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데 벌써 합격한 것처럼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뻔해.